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9년 4월

선교편지 제 119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 24일 디고스예일교회의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당시 겪었던 쉽지 않았던 과정과 초창기 드렸던 예배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디고스예일교회가 오늘 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도 가 보지 않았던 길을 많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나 왔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 참으로 주재 넘은 기우였습니다. 지나온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고, 부족한 저희는 영광 스펀지라도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기쁨의 자리에 동참 했을 뿐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풍성하게 후원 해 주신 동역자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교회의 큰 행사를 앞 두고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과 같으면 적어도 두 달전부터 계획과 준비를 위하여 회의가 소집되고, 역할을 분담하고, 연습을 시키고, 리허설까지 하는 등 참으로 분주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 연간 행사표에 따라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여 부서별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부지런히 쫓아 다니면서 준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각종 행사의 의미를 훨씬 더 부각 시키고, 미처 잘 몰랐던 교우들의 독특한 달란트들이 풍성하게 동원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행사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앞두고 현지 교역자들로부터 이번 기념 예배는 전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들으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각 부서별 특별 순서와 찬양은 기본이고, 좀 더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디고스예일교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몸이 굳어 있는 남선교회원과 여전도회원의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일반적인 정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춤과 노래만큼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도 얼마나 힘이 있고 열심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이 몸이 심하게 굳어 있어서, 전체 분위기와 잘 맞지 않는 몇몇 교우들이 있는데, 이들만의 특별 찬양과 율동을 준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워 할지 눈에 보이는 듯해서 안스럽기까지 하지만, 자신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었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온 교우들이 교회 청소를 깨끗히 하고, 장학 사역에 소속된 대학생들은 밤을 세워가며 모든 달란트를 동원해서 교회 안과 밖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날에 온 교우들이 함께 먹는 통돼지를 굽기 위해서 교회 밖의 뜰에 화덕을 설치하고, 몇몇 남선교회 회원들이 더운 날씨 가운데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도 음식 준비에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교사들의 인도에 따라 마지막 준비에 열심히입니다. 또한 창립기념주일에 공식적으로 선을 보이게 되는 Youth Group찬양팀도 연습에 한창입니다.

마침내 창립 4주년 기념주일이 되어 온 교우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디고스예일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간증과 함께, 각 부서별 찬양, 그리고 몸치의 벽을 깨뜨리고 열심히 율동과 찬양을 올려 드린 특별 순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 주는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더욱 더 디고스예일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혀줄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 갑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디고스예일교회에 '라모스'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매월 송부한 선교편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 2015년 10월에도 '라모스' 집사님에 대한 소식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부인되는 '아빙' 집사님과 함께 세 자녀를 키우는 화목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디고스예일교회가 건축 완공되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4년여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그야말로 성실하게 몸뚱이 교회에 잘 섬겨온 귀한 집사님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집사님으로 각종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장 먼저 오고, 예배후에 모든 정리를 마치고 가장 늦게 가는 집사님이기도 합니다. 4년여전 디고스예일교회에 출석을 할 당시, 건축 공사 현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전교인 중에 유일하게 '십일조' 헌금을 해왔던 집사님입니다.



이제 벌써 4년여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몸뚱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라모스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불안정했던 허드렛 일이 아니라, 이제는 가구점에서 판매와 배달을 하는 안정된 일을 하고 있으며, 부인 집사님도 집에 세탁기를 장만하여 마을 빨래방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판자로 둘러친 집에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거의 유일하게 페이트 칠을 한 벽돌로 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많이 해 주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반듯한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축복도 귀하지만, 이들 부부를 통해서 디고스예일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섬김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일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와 감정의 폭이 매우 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쁠 때는 매우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낙망했을 때는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인들 간에 상처를 쉽게 주기도 하고, 쉽게 받기도 하지만, 라모스 집사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언제나 한결 같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교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일에도 늘 함께 함으로 인해서, 셀 그룹 리더로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2019년을 맞이하여 각 부서를 조정하는 가운데, 라모스 집사님을 교인 심방과 새교우 정착, 등록을 전담하는 부서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심방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얼마나 성실히 이 사역을 감당하는지 거의 매일 교우의 집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디고스예일교회는 이제 4년을 지나가지만, 꾸준히 십일조 헌금을 드리는 교우는 '라모스 집사님'가정 밖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몇몇 교우들도 결단하고 십일조 헌금을 드리기도 했지만,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 오래가지 못하고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3월에 라모스 집사님이 근무하는 가구점에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빵을 사들고 심방을 갔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열악한 환경에 싼 임금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안스러운 라모스 집사님만이 보입니다. 하루 일당 \$8, 즉 월 수입이 약 \$200 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금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신실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라모스 집사님께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방을 가서 도리어 제가 은혜와 도전을 받고 돌아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라모스 집사님의 신실한 섬김을 통하여 디고스예일교회와 이 지역에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곳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 2:5)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교회의 부흥과 아팔라야 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